

2020년 1월 19일 주일예배	
행 9:10-19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

시작하는 말

주님은 당시 악명 높았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성도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있었던 교회의 위험인물이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개 오늘 본문을 가리켜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장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기엔 사울 편에서 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연히 말하자면 이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중심 말씀

1.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이 만남을 이루어 갑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포기치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2. 하나님께 () 인생이 복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나니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 때문에 사울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사울을 처음 눈멀게 하셨던 때처럼 다시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 눈을 뜨게 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경험은 아나니아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3. 하나님은 ()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사울 입장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평생에 간직할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다가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정리하는 말

올 한 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01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롭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주소서
02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후렴)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94)

-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